

# “농업재해 반복되는데 피해 지원은 1번뿐…기준 바꿔야”

농작물 ‘한 작기 1회 지원’ 뚫여 원인·양상 다른데 보상 못받아 최명수 도의원, 제도개선 건의안

예측할 수 없는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한 작기 (한해 중 작물을 심고 거두는 시기) 1회 지원’ 원칙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의회와 농민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0일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쟁취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연쇄적·복합적 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번 지원으로 모든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고 지적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을 작기당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작기 안에서 서로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반복돼 첫 번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후 피해에 대해 추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다.

올해 전남에서는 7월 집중호우로 벼

6,500여㏊가 침수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에는 고온다습한 기상으로 ‘깨씨무 낙봉’이 1만3,000㏊ 이상 확산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여름에 자연재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가을철 병해 피해를 봤음에도 농업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큰 혼란을 겪었다.

나주반남면에서 40년 넘게 벼농사를 짓는 A씨는 “여름 침수와 가을 병해는 원인도 피해 양상도 완전히 다른데 지원은 한 번으로 끝이니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이 신청 자체를 막아버려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자연재난과 병해충 등 농업재해가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1회 제한’ 규정으로 뚫여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농민단체들은 “연속 재해가 현실이 된 기후위기 시대에 현 보상 체계는 농가의 생계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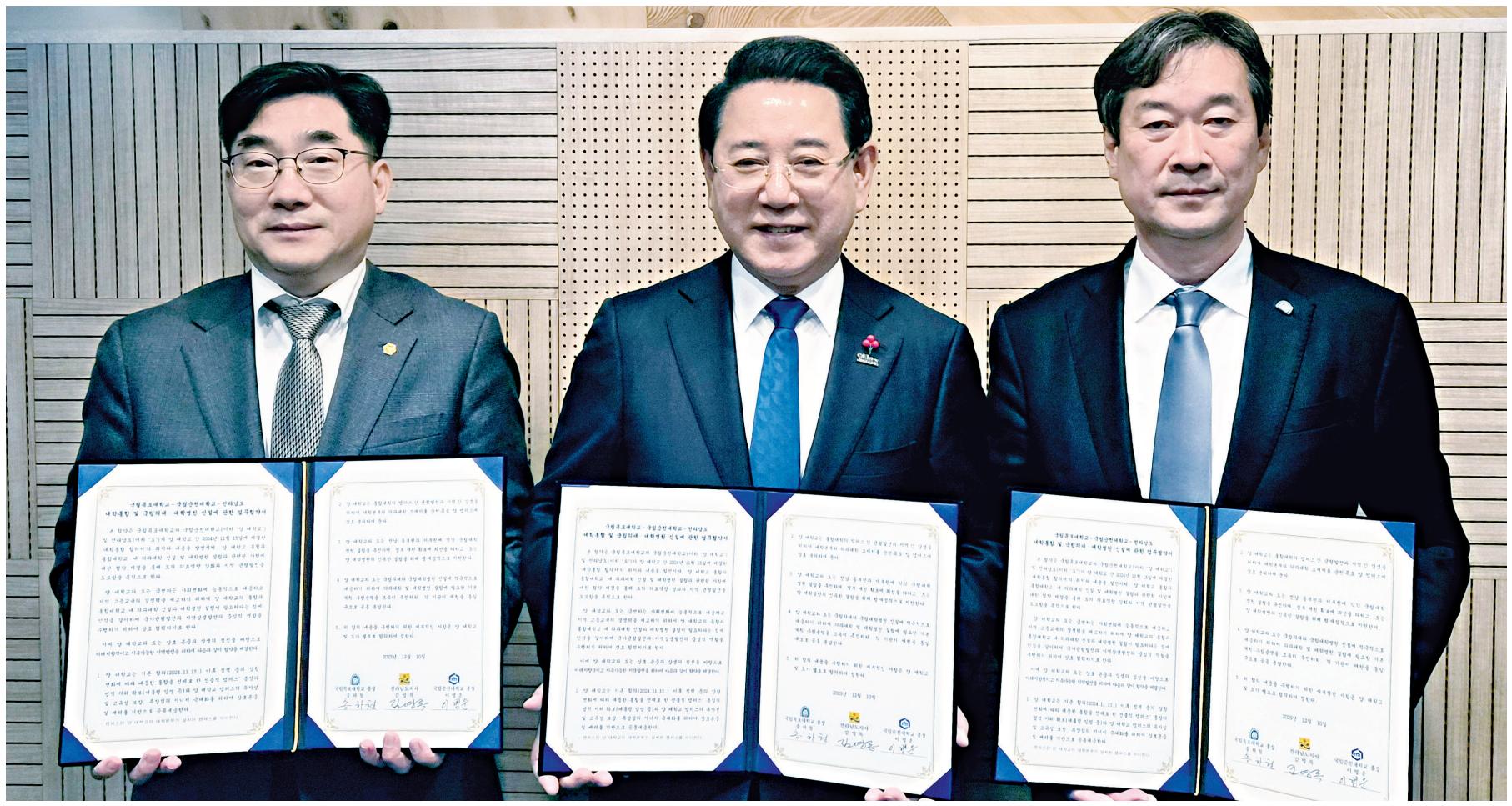
최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일상화됐다”며 “농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농업 기반 자체가 훈들리는 만큼 계절·원인·피해 유형을 반영하는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 jndnnews@naver.com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광주에서 이병운(왼쪽) 순천대 총장, 송하철(오른쪽) 목포대 총장과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속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신설 결의 다졌다

### 빠른 통합·국정과제 적극 대비 동·서부권 국립대병원 등 총력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가 대학통합을 통한 속도한 국립의대 신설을 거듭 다짐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에서 목포대 송하철 총장, 순천대 이병운 총장과 통합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교명 선정을 주진하고,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 7차 심사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대학통합 절차에 맞춰 원활한 통합을 뒷받침하고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와 두 대학은 협약을 통해 대등

한 통합을 전제로 한 캠퍼스 총장 법적 지위 확보 공동 대응과 통합대학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순천·목포 두 캠퍼스 분리 배치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전남·동·서부권에 각각 국립대병원 설립을 주진하기 위한 정부 재원 확보와 행·재정적 지원, 정부 국정과제 이행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속 추진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 지사는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

회 대응 등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대학통합과 의대정원 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정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향후 실질적 개교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 이 대통령 “반도체산업, 우물 넓게 파 많은 이에 혜택”

###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남쪽 지방으로 눈 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산업의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는 ‘공정성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핵심”이라면서 “제 소망”이라면서 공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

기애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 민주, 지선 광주·전남 선출직 평가 본격화

### 내년 1월 20일 전후로 확정 ‘하위 20%’ 포함 초미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현역의원 평가를 본격화 한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중앙당 설명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시·도당 단위의 평가 설명회에 들어갔다.

앞서 각 시·도당은 평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현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받아 출마 의사서를 파악했다.

시·도당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출

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단체장은 △도덕성 △리더십 △공약이행 △직무수행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광역·기초의원은 △입법활동 △행정감사 △지역공헌도 △동료의원 평가 등이 반영된다.

평가위원회는 한 달여간 평가를 진행해 내년 1월 20일 전후로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컷오프’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현역 평가는 재선 이상을 노리는 이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점수 또는 득표수의 2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재선 도전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기초단체장은 시도당 단위에서 평가한다. 또 광역의원은 의회별 또는 상임위별,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하위 20%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광주 1명·전남 3명, 광역의원 광주 4명·전남 11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들에게는 하위 20% 포함 여부가 경선 통과를 좌우하는 사실상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만큼 평가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FUNIS**

**3F 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골프 PARK 서비스 스크린골프 12홀과 부대시설

**2F 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골프 PARK 서비스 스크린골프 11홀과 부대시설

**1F 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샌드론 공간

**B1 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loor Plan**

**2 - 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鹭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등학교